

강진군 ‘불금불파’ 시즌2 시작… 경제 활성화 ‘시동’

불타는 금요일에 불고기 파티

내달 6일부터 병영시장 장옥 일원
장옥마다 전구 설치 분위기 띄워
텐트촌 연계한 체류형 관광 시도
돼지고기 관련 추가 신메뉴 선보

지역 문화자원과 고유한 음식을 연결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색다른 행사를 선보인 ‘불금불파·불타는 금요일에 불고기 파티’가 9월6일부터 하반기 일정을 본격 시작한다.

캠핑장 가족단위 체험행사를 편성하고 각종 동호회 등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27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부서별 관계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강진 불금불파 행사 추진 보고회’를 가졌다.

여름철 더위를 피해 2달간의 휴장기를

갖고 이어진 재개장으로 본격적인 행락철에 맞춘 관광객 유치가 급선무라고 판단해 하맥 축제장에 포스터 게시와 전단지 비치하고 반값 관광, 푸소체험, 다산청렴교육 참여자들과 인근 시군 각종 동호회원들을 직접 찾아가 불금불파를 홍보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올해 유난히 길고도 습한 폭염이 계속되며 재개장을 한 후에도 당분간 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행사 시간을 1시간 늦춘 오후 5시부터 개최하고 술과 음료의 시원함을 유지하기 위해 양동이와 얼음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상반기에는 우천 시 병영시장 장옥 사이를 활용해 행사를 진행했지만 하반기에는 장옥 사이마다 전구를 설치해 불고기 파티 분위기를 한결 살리는 인테리어를 선보인다.

조산 주차장에서 행사장으로 이어지는

다리에 포토존을 조성하고 기존 포토존도 새롭게 단장해 불금불파의 흥행을 하반기에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병영 투어 1박2일 프로그램’을 텐트촌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으로 진행하고 텐트뿐 아니라 개인 카라반까지 확대 운영해 체류형 관광으로의 변신을 시도한다.

가족단위 고구마 캐기 체험도 추가해 자연과 함께 하는 재미를 더하고 하멜기념관 일원 텐트촌에서 병영시장 주변에도 점차적으로 캠핑장을 조성해, 가족 관광으로 적극 확대해간다는 방침이다.

재개장 전날인 9월 5일에는 안전관리 중간 점검을 실시하고 행사 기간에는 오전·오후 주변 소독을 실시하는 등 위생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한다.

재개장 전까지 축제장 준비 창고, 장옥, 매대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돼지불고

기 구이뿐 아니라 관광객의 다양한 입맛을 겨냥한 돼지고기 관련 메뉴를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불금불파 행사는 젊은 층을 겨냥한 EDM 공연을 중심으로 삼고 지역농산물, 기념품 증정 이벤트를 공연 중간마다 진행해 지역 상권을 살리는 실질적인 ‘경제 행사’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임성수 인구정책 과장은 “불금불파 행사는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강진군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며 “로컬 브랜드 공모사업 추진과 더불어 재개장 준비에 박차를 가해 지방 소도시의 기적을 또 한번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상반기 불금불파 행사는 누적 관광객 9000명이 방문해 1억5400만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외국어 지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진도군, 언어장벽 해소 노력

진도군은 전남 지자체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에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진도군에는 300명이 넘는 결혼이민자를 포함해 2310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외국어 지원 서비스가 없어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진도군은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이민자 등의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2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 외국어 UI(User Interface(한글을 외국어로 변환)) 지원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한국어 외에 베트남어 등 4개 외국어를 지원하는 기능을 탑재해 각종 지원사업 신청 시 서류 제출에 어려움을 겪던 이민자와 외국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군민원봉사관계자는 “다문화가정과 이민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강진군, 보은산 등산로 정비 마쳐 목계단 교체·트레킹길 구간 조성

강진군은 보은산 등산로 정비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진읍과 군동면에 걸쳐 뻗어있는 보은산은 해발 439m의 높이 않은 산으로 등산과 산책을 겸할 수 있고 약수터에서 물을 받아갈 수도 있어 하루 평균 약 500명의 주민들이 찾는 군민의 산이다.

군은 모란공원에서 북산방면에 노후된 목계단과 안전로프를 교체 작업을 지난 14일 완료했고 지난 2022년 6월 시작해 지난 8월까지 보은산 트레킹길 3차 구간까지 8.3km를 조성했다.

내년까지 기존 임도와 연결하는 4차 구간을 마무리하면 총 노선 16km 보은산 트레킹길 조성이 완성된다.

여기에 2026년 마을에서 진입하는 보조 등산로를 정비하면 보은산의 접근성은 물론, 온전히 보은산을 즐길 수 있는 트레킹길이 완성돼, 등산객들의 안전과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등산·캠핑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산림관광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

신안군, 임산부 전용 휴게실 개소 출산·육아 직원 처우 개선

신안군은 지난 26일 여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산부 직원들만을 위한 전용 휴게공간 개소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개소한 휴게실은 잦은 휴식이 필요한 임산부 직원들의 어려움을 경정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임산부 휴게실은 임산부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소파와 발 안마기 등의 편의 시설과 함께 개별 휴식 공간 4실을 마련해 임산부 직원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했다.

신안군은 지난 3월 육아 여직원 간담회를 통해 건의 사항을 청취해 육아 관련 애로사항 및 정보 공유 창구 마련을 위한 1004맘 알림방 개설, 초등학교 6학년까지 육아시간 확대,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 유연근무 및 육아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임산부 휴게실 개소를 통해 임산부 직원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해남군, 치매치료 관리비 확대 기준 120%이하→140% 이하

해남군은 9월부터 전남형 치매돌봄제 종합대책에 따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기준을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치매 돌봄 강화와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치매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해남군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해야 치료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된 치매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 처방이 기재된 약제비 처방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면 지원금을 받게 된다. 치매치료관리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해남군 치매안심센터에 문의(061-531-3703)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



해남 군민들이 양산을 대여 받아 사용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7월부터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 32개소에서 ‘양심 양산대여소’를 운영중이다.

해남군 제공

해남군, 온열질환 예방 ‘양심 양산대여소’ 운영

해남군이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지속됨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27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해남군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 32개소에서 ‘양심 양산대여소’를 운영하고 있다.

관내 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13개소, 보건진료소 18개소)을 방문하는 해남군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대여할 수 있으며 1인 1개, 5일간 사용 후 보건기관에 반납하면 된다.

양산을 쓰게 될 경우 피부가 직접적으로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주고 체감온도를 약 7~10도 이상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는게 해남군의 설명이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더운 시간대(낮 12시~오후 5시)에는 야외 활동 자제하기 △외출 시 모자나 양산으로 햇볕 차단하기 △규칙적으로 자주 물 마시기 등의 건강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양심양산 대여소 운영을 통해 군민들이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철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영암군, 공공주택 첫 입주자 동·호 배정 추첨

30세대 9월 중 입주 예정

영암군은 지난 23일 청에서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사업 동·호 배정 추첨행사’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사업은 민선 8기 영암군의 중요 정책으로 청년·신혼부부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것.

영암군은 지난해 11월 청년·신혼부부들에게 안정적인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맺고 2027년까지 200호를 공급하

기로 했다

그중 첫 번째 영암형 공공주택 입주 추첨식이 열린 이날 삼호읍 용양LH휴먼시아1단지아파트 30호의 동·호 배정이 이뤄졌다.

영암군은 지난 6월3일부터 8월2일 까지 3회에 걸쳐 영암형 공공주택 첫 입주자를 모집했고 이날 추첨 참여자들은 영암군주거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가구들이다.

동·호수를 배정받은 입주자들은 임대주택 보증금 전액을 영암군에서 지원받는다. 예치금을 내고 매월 관리비만 부담

하면 되는 사실상 ‘0원 공공주택’에 입주할 앞두고 있다.

입주는 현재 진행 중인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임대계약인 사용대차계약을 마무리하는 9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입주자들은 최장 6년까지 영암형 공공주택에서 살 수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형 공공주택 입주를 축하드린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주택공급을 조율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렸다.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영암군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영암=한교진 기자

